대학원 박사과정 연구 논문발표회

대진대학교 대학원 제1회 학술대회 개최

대진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통일학 전공 유영파 씨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대진대학교 대학원(원장 구득환)은 11월16일 오후1시부터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발표회로 인문·사회분야와 자연·공학분야로 나누어 실시했다.

논문발표회는 각 논문 주제별로 교내 지도교수와 외부 전공교수를 초빙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교육학과 특수교육전공 최평임 씨의 통합학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교수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분석이라는 주제발표와 한현민 대진대학교 아동학교 교수와 김원경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토론 등 9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대진대학교 대학원은 1995년에 석사과정을 2003년도에는 박사과정을 설치해 현재 37개 전공 150여명의 원생들이 각 전공분야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교사(관리직제외)리더십의 필요성(발표자: 성현주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토론자: 안병환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안세근 건국대학교 교수)▶단위학교 책임경영제와 학교장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발표자: 이광숙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토론자: 안병환 대진대학교 대학원 교수, 안세근 건국대학교 교수)▶진보적 사림파의 재조명(발표자: 구재현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 토론자:권인호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조한석 성균관대학교 교수)▶디스플레이 색 화질 향상(발표자: 백예슬 물리학과 색채물리학 전공, 토론자:박승옥 대진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유기성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상자형 다층식, 자동화 지렁이 사육시스템(발표자:박광일 생명과학과 동물생태독성학 전공, 토론자:배윤환 대진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포스포리파아제 C-감마 1의 pleckstrin homology 영역에 결합하는 단백질 동정 및 신경 섬유 단백질의 자가조립에 중요한 영역 탐색(발표자:김성국 생명과학과 미생물학전공, 토론자:장종수 대진대 생명과학과 교수, 서정곤 (주)제놀루션 연구소장)▶북한의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발표자:김재완 북한학과 북한학 전공, 토론자:양무목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장, 유광진 동국대학교 교수)▶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한연구(발표자: 유영파 북한학과 통일학 전공, 토론자: 박승식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교수, 조의환 동국대학교 교수)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평소 배우고 익힌 실력 발표

명품 신봉 가을 한마당 대축제

신봉초등학교(교장 조규식)는 10월12일 학교 운동장에서 명품 신봉 가을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대축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모두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평소 교과수업 및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발표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축제를 통해 신봉초등학교 학생들은 평소부터 질서지키기 습관으로 축제가 끝날때까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교사들의 노력과 열성, 그리고 학부모의 먹거리 장터 운영 등 으로 풍성한 축제 만들기가 가능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우유마시기 대회, 손님 찾기, 학부모 청백 줄다리기, 운수 대통(할머니, 할아버지) 등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어린시절 운동회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댄스 스포츠, 태권도 시범, 포천 소리패의 민요 공연 등의 찬조 공연과 힘들어 꺼려하는 차전놀이 등을 구성함으로써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만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번 대축제를 개최한 신봉초등학교 조규식 교장은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와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멋진 축제였다"며 "신봉초등학교가 포천의 명품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6학급 편성후 첫 가을운동회

포천삼정초등학교 10월11일 한마음축제

포천삼정초등학교(교장 한태현)는 10월11일 학교정상화된 기념으로 삼정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3년전 3학급에 불과했던 작은 학교에서 2007년 6학급으로 학교가 정상화된 후 처음 맞이하는 한마음 축제는 운동회 겸 작품전시회로 이루어졌다.

이날 개회사에서 한태현 교장은 "오늘의 삼정축제가 단지 청군과 백군의 승부를 결정하는 경기로만 알아서는 안된다"며 "스포츠맨쉽이라고 해서 서로 상대편을 존중하고 신사적으로 대하여 싸우는 것이 스포츠이며 오늘 삼정의 어린이들은 질서를 잘 지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축제에는 학생들이 지난 1년동안 공부하며 배운 것을 모아 작품전시회를 1층 복도에 전시해 볼거리도 제공했다.

또한 삼정초등학교 총동문회와 남청산이장협의회, 삼정초등학교 어머니회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先進보육의 場 송우어린이집 준공

보육환경 개선 안전하고 편리하게 아동 보육

포천시는 11일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어린이,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흘읍 시립 송우어린이집 준공식을 가졌다.

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흘읍은 보육수요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노후된 송우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아동들이 보육될 수 있도록 대체신축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증진하게 되었다.

올 3월 착공하여 8월 준공한 송우어린이집은 4억7천여만원의 총사업비로 연면적 1485㎡에 보육실 5실, 유희실, 조리실 등으로 지어졌다.

박윤국 포천시장은"자연환경에 어울리게 새롭게 건립된 송우어린이집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보육을 선도하고,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 미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선진보육에 최선을 다하는 곳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매년 연차적으로 확충사업을 하고 있으며 1개 읍·면·동에 1개 시립보육시설 신축을 목표로, 지난해 선단동에 선단 꿈나무어린이집을 선두로 하여 올해 내촌면 지역에도 공보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촌 꿈나무어린이집을 건립한 바 있다.

또 장애전담어린이집이 17일 포천꿈나무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예정이며 영북면 시립어린이집도 12월 준공예정이다.

포천시는 2008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에 불안요소를 해결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보육교사의 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역대학생들의 현장교육을 통한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예비보육교사 도우미 활동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여중 안보교육 병영체험

육군 8사단 생생한 안보교육 제공

포천여자중학교(교장 박일화)는 10월5일 국군의 날을 맞아 4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부대병영체험 행사를 통해 생생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육군 8사단 예하 번개연대는 포천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소식, 부대소개영상 시청, 전투장비 및 생활관 견학, 군악 퍼레이드, 특공무술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했다.

전투방비 시연은 보병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전차, 자주포, 지대공 발칸 무기, 헬기 등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비를 전시하여 전쟁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시연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장비를 실제로 조정하는 군인들의 친절하고 알찬 장비 성능 설명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묘 "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사단 예하 번개부대장 박주성 대령은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과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강한친구 대한육군의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여자중학교는 10월5일 국군의 날을 맞아 4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부대병영체험 행사를 통해 생생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은 부대장과 함께 반합식사를 하고 있는 포천여중 학생들)

좋은 일 한다는 긍지로 동참

3/4분기 정심장학회 정기모임

정심장학회(회장 이주석)는 10월17일 송우리 신수원가든에서 3/4분기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증강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9월 정기모임을 추석연휴와 회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10월로 연기했었다.

회원들은 정심장학회 모임취지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회원들이 늘어나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회원증강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주석 회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탈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심장학회 근본취지를 못느끼는 사람이 있다"면서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심장학회는 10월17일 송우리 신수원가든에서 3/4분기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증강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준공식

포천꿈나무어린이집 개관식도 함께

포천시가 68억원을 투자·건축하여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과 신읍중앙교회에서 수탁 운영하게 된 전문사회복지기관인 포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주현)과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인 포천꿈나무어린이집(원장 진미숙)이 10월17일 준공 및 개관식을 개최했다.

군내면 하성북리에 위치한 포천종합사회복지관과 포천꿈나무어린이집은 대지 8천851㎡(2천678평)에 건축연면적 2천764㎡(835평)로 작업·물리치료실, 언어·놀이치료실, 다목적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복지타운의 핵심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준공 및 개관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장, 사회복지 시설장, 자원봉사단체장, 노인회 및 경로당 어르신 등 시민 500여명이 참석하여 포천시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역사회복지 구현은 지역경제 운용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 복지관이 종합적인 주민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포천종합사회복지관과 포천꿈나무어린이집은 16만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자원을 개발하고 일반 지역주민에게 포괄적이며 역동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가 68억원을 투자·건축하여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과 신읍중앙교회에서 수탁 운영하게 된 전문사회복지기관인 포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주현)과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인 포천꿈나무어린이집(원장 진미숙)이 10월17일 준공 및 개관식을 개최했다.

《《 함께 공부해요 》》

심술지요(心術之要) ㊳

丹書 에 曰 敬勝怠者 는 吉 하고 怠勝敬者는 滅 하며
義勝欲者 는 從 하고 欲勝義者는 凶 하니라.

서적의 이름인데 붉은 새가 물고 온 책이라 전함.

단서에 말하기를 공경하는 마음이 게으른 마음을 이기는 자는 길하고, 게으른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을 이기는 자는 멸망한다. 의리의 마음이 욕심을 이기는 자는 순조롭고 욕심이 의리의 마음을 이기는 자는 흉하다 하였다.

매사에 두려워하고 근신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태만한 자는 실패한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길을 간다면 일이 순조롭지만 욕심에 가려서 나쁜 짓을 일삼으면 재앙이 닥친다.

대체로 게으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보기가 힘들다. 불의를 행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혹 불의의 짓을 하여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마음은 늘 불안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일에 신중하고 바르게 산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양주 승
본지 자문위원회 고문

윤종성의
국제비지니스 미국영어

25. < 가정방문 > : 초대(8)

*좀 더 드릴까요?
메아이겟쥬 썸모어?
〈May I get you some more?〉
*아닙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노우땡큐, 아이뤼어리인죠이릿
〈No, thank you, I really enjoyed it.〉
*커피나 브랜디, 케익 좀 드실까요?
우이햅 썸케익, 커휘,
티이, 앤브랜디훠유
〈We have some cake, coffee,
tea, and brandy for you.〉
*브랜디 조금 하겠습니다
아일버리를 브랜디
〈I'll have a little brandy.〉
*미스터 "신"은요?
하러밧 미스터 신?
〈How about Mr.Shin?〉
*같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더쎄임, 땡스
〈The same, Thanks.〉
*모두 브랜디로 합시다
브랜디, 훠에브뤼바리히여
〈Brandy, 핵 everybody here.〉

문의 : 윤 종 성 (017-723-4977) colyoon@nate.com